

새로운 油價체제의 출현 가능성

석유 전문가들은 현재의 石油시장을 과도기 상태로 보며, 80년대의 시장의 침체상태이기 때문에 불원한 새로운 油價체제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제도는 OPEC(석유출국 기구) 체제내에서 채택되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채택되건간에 시장원리와 산유국들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게 될 것이다.

석유산업에 통합과 집중화의 열풍이 몰아쳤던 50년대와 60년대만 해도 석유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과 공급부족의 문제는 석유회사들의 조직 내부에서 다루어졌었다. 즉 당시는 석유회사들이 안정적인 低油價의 기반에 국가간 생산량을 배당해줌으로써 시장 불균형을 수습하였다. 그렇지만 70년대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2원화로 특징지어졌던 시대이며, OPEC이 원유가격을 관리하는 임무를 떠 맡고 있었다. 비록 OPEC가 1973년과 1979년에는 석유시장을 油價폭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지만 물량조절을 통해 일정수준에서 유가를 유지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70년대에 그와같은 임무는 그에 상응한 성과가 뒤따랐다. 즉 세계 석유 생산량의 2/3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 석유 교역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던 OPEC는 산유쿼터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한계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 불황으로 유발된 1975년과 1978년의 공급과잉 상황에서 OPEC는 공시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계 공급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70년대의 高油價현상은 80년대에도 계속 이어져 石油의 수요·공급과 석유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다.

● 수요측면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즉 1973년부터 1986년 기간 동안 IEA 그룹에서의 에너지 집약도(GDP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는 21% 감소하였고, 석유 집약도는 35%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1979년~1980년의 유가상승 이후에 가속화 되었다. 즉 1973년~79년동안 감소된 에너지와 石油의 집약도는 각각 5%와 10%였는데 반해, 1979~86년 동안에는 그것이 각각 17%와 27%가 감소되었다.

● 공급 측면에서는, 高油價와 OPEC의 한계적 역할로 인해 OPEC지역이외의 생산 코스트가 높은 지역에서의 석유탄사와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 1986년 사이에 非OPEC(美國과 공산권 제외)의 석유생산은 하루 580만 배럴이었던 것이 1,410만 배럴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요측면에서의 감소와 非OPEC 공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공급 물량은 OPEC에 의해 흡수되었다.

●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즉 70년대의 특징인 기간계약 판매에서 현물판매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美國에너지 산업의 인·허가 규제가 철폐되고 북해 석유가 생산됨에 따라 1981년말에는 스파트 거래와 가격이 석유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石油의 수요와 공급에 덜 치중하는 성격을 띄는 새로운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오늘날 OPEC 이외의 산유국은 60여개에 이르며 그중에는 석유수출국도 있다. 또한 수출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 가는 국가는 약 150여개

국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하에서 OPEC이 유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란 역부족이다. 또한 OPEC이 유가관리를 위해 사용했던 정책과 수단들로 인해 OPEC의 역할을 위태롭게 하는 다른 요인들이 발생하였다.

첫째로, OPEC는 안정된 자원에 대한 회원국들의 재정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石油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으며, 대체 연료의 사용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유가의 적정선을 한번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아마도 OPEC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석유부존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즉, 가채년수가 짧은 산유국들은 가채년수가 긴 산유국들과는 달리 석유판매를 통한 바로 눈앞의 큰 수익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가격에 대한 견해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OPEC는 그 당시 시장여건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80년대 초반 OPEC는 감산 정책으로 배럴당 34~28달러의 준 최적 가격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로인해 非OPEC에게 가격 결정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초과 생산능력이 발생하게 되어 油價하락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둘째로, 공식가격을 정하고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른 점유율의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석유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非OPEC가 유리한 가격조건 하에서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을 때 이러한 시장점유율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회원국들의 석유수출 수입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로인해 대다수 회원국들은 가격 결정권을 非OPEC에 넘겨줌으로써 비OPEC 관례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계공급자로서의 역할은 회원국들에게 공식유가를 고수하도록 강요하는 입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편 OPEC 석유에 대한 수요, 특히 생산조정자인 사우디 석유에 대한 수요가 공식유가에도 못미치는 배럴당 28달러 수준에서 계속 침체되었기 때문에, 석유판매 수입이 감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져 마침내 1986년의 유가폭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OPEC가 86년에 잠시 중단후 다시 공식유가제도와 생산쿼터제로 환원했을 때 가격전쟁은 최악의 상태 까지 진행됐고 수요감소 추세는 잡혔으며 非OPEC 공급량도 기술적 또는 자발적인 감산을 통해 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유가 설정에도 불구하고 OPEC의 역할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들은 계속해서 OPEC의 시장점유율과 가격구조에 불협화음을 조성했다.

만약 석유시장에 공급된 石油의 한계 물량이 油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한계 공급자는 石油價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OPEC 이 세계 석유 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공식적인 원유가는 기준 유가에 의해 책정되었다. 그러나 OPEC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이에 비례하여 공식가격 원유량이 줄어들자 OPEC의 유가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공식 판매가(Official Sales Prices; OSP)로 책정된 원유량이 감소한 것은 OSP를 적용하지 않는 일부 산유국들의 지분 원유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대다수 OPEC 회원국들은 하루부문에 투자하였으며, 그들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했을 때, 시장연동 방식을 따르는 가격정책으로 인해 가장 먼저 원유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이것은 사우디 석유수출의 75%가 공식 가격으로 책정된 원유였던 1987년에 사우디가 한계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중 하나가 된다.

OPEC로서는 유동적인 유가정책을 이미 1986년에 경험해 본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생산 통제가 해제되었던 1월부터 8월까지의 油價는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폭락하였다. 그러나 OPEC이 9월부터 12월까지 하루 산유량 한도를 1,480만 배럴로 정하자 油價는 배럴당 15달러 선으로 회복되었다. 생산량 제한으로 유가 회복을 경험했던 OPEC(이라크 제외)은 배럴당 18달러의 바스켓 가격결정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198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1,506만 배럴의 산유쿼터를 채택하고 있다. 1986년의 경험을 통해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생산제한이 유가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더우기 생산 제한의 효과는 얼마큼 산유국들이 그것에 참여하느냐와 그들이 어느정도 정해진 생산수준을 지켜주느냐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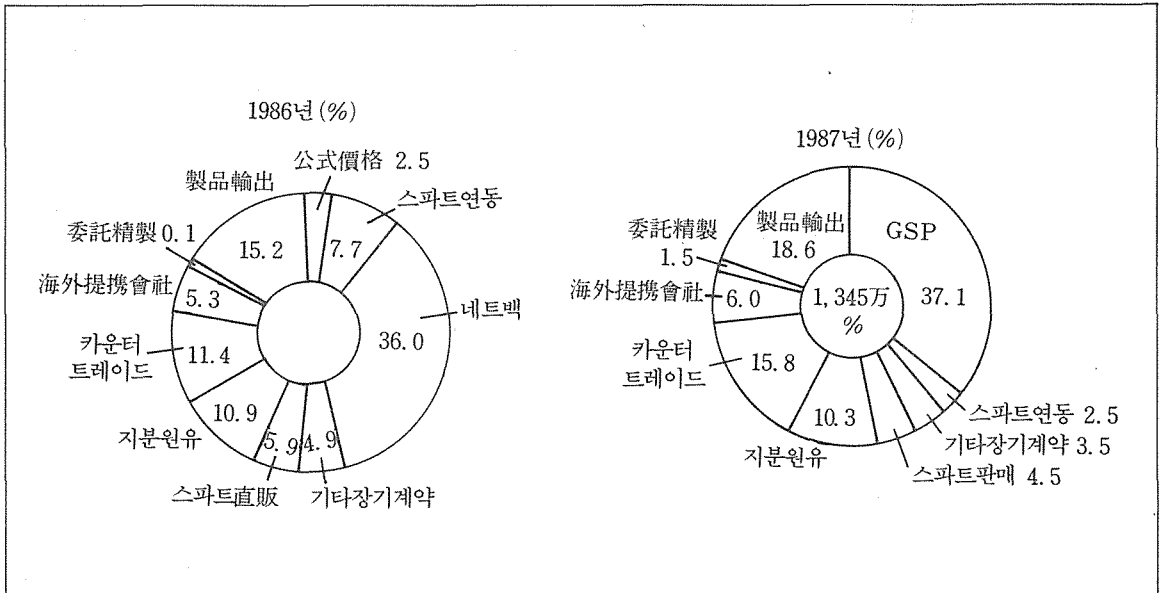
유동적인 油價제도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다음 몇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즉 유동적인 유가제도는 과연 국제석유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침체되고 분열된 시장 여건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쓰여지는 것인가? 상대적으로 고정유가제가 다시 한번 석유시장의 통합과 결속을 한층 더 강화시키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는 안정된 가격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油價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침체상태에서의 고정유가 제도는 OPEC의 시

장 점유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OPEC의 효과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한한다. 반면에 유동적인 유가제도는 예상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만약 그러한 유동성이 OPEC의 산유량 상한선 설정과 산유쿼터 배정과 같은 생산 통제에 의해 제한 되어진다면 유가 이동 영역은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말해 원유가의 적정선은 어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겠는가? 1988년초 몇달동안 OPEC의 Basket 현물시장 가격은 평균적으로 배럴당 15달러였던 반면에 실제 석유생산은 정해진 산유량 상한선을 넘어섰다. 반면에 당초의 생산계획을 지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시행되었던 생산제한들은 유가가 더이상 하락하는 것을 방지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만약 유동적인 유가가 구태연한 한계역할 대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합당한 석유재정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가격거래방식이 될 것인가?

오늘날 산유국들은 원유가격을 제품시장 가격에 연동시켜 가격을 책정할 때 각기 다른 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어떤 국가들은 네트백 가격결정 방식을 따르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나라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Brent, Dubai, Oman, ANS와 같은 비OPEC원유에 가격을 연동시켜 그들의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거래방식들은 판매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된 네트백에서의 단서 조항들과 같이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각 가격정책하에서 비OPEC 원유가 물량도 작고 가격도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유가의 기능을 지니게 되며, 이로인해 OPEC의 역할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 (MEES)

OPEC 판매형태의 변화



에너지절약 365일